

가족임파워먼트 척도(Family Empowerment Scale)의 요인구조 검증 및 단축형 척도 개발

Family Empowerment Scale: Factor Validation of the Original Form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yon Jung(jungsy@swu.ac.kr)

요약

본 연구는 Koren, DeChillo와 Friesen(1992)이 장애아동 부모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가족임파워먼트척도(Family Empowerment Scale: FES)의 심리측정적 성격을 파악하고, 단축형 FES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가 활용되었다. FES 원척도의 경우 내적일관성신뢰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이 척도의 이론적 요인구조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 등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척도 문항의 특성 및 원척도의 제한점을 파악하였다. 이론적 근거와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단축형 척도에 포함될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완성되었다. 이 단축형 척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양호'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FES의 요인구조를 파악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구성개념 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좋은 단축형 FES를 개발함으로써 척도 콘텐츠 개발 및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임파워먼트 | 가족임파워먼트 척도 | 장애아동가족 | 구성개념타당도 | 단축형 척도 개발 |

Abstract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One is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Family Empowerment Scale(FES) developed by Koren, DeChillo and Frisen(1992). The other is to develop a short-form FES. Data collected from 337 members of Parents' Solidar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used. FES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but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did not support the theoretical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Basic analyses such as correlation and descriptive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items and identify the limitation of the original FES. In addition, a series of CFA were carried out to develop a short-form FES. Finally 15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oretical rationale and the results of CFA. Cronbach's α and the model fit indices for the short-form FES indicated that this measure has good construct validity as well as internal consistency. In discussion, usefulness and potenti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content development in the area of measuring instruments.

■ keyword : | Empowerment | Family Empowerment Scale |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 Construct Validity |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접수일자 : 2013년 05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6월 24일

수정일자 : 2013년 06월 17일

교신저자 : 정소연, e-mail : jungsy@swu.ac.kr

I. 문제제기

임파워먼트 개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구조적 차별에 맞서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전개했던 시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노조활동 등 여러 사회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1]. 이 용어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1970년대로 이 시기부터 사회과학자들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2].

사회복지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0년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체계이론 및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한 문제해결모델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3]. 사회복지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일반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힘(power)를 가지게 되는 과정[4] 혹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힘을 증가시키는 과정으로[5] 이해된다. 이 개념의 핵심은 병리적 관점과 의료모델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강점관점과 맞닿아 있다[6][7].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사회의 주류로부터 비껴 있던 사람들도 강점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와 타인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8]. 이러한 관점이 서비스 제공 및 임상개입 현장에 적용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초점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단점으로부터 강점으로 이동되었을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면서 수동적인 위치를 요구받았던 서비스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9] 임파워먼트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임파워먼트와 강점 관점은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아왔던 대표적인 인구집단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많은 서비스가 여전히 재활과 의료모델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3]. 상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위험은 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역시 가족원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과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데[10][11], 부모의 임파워먼트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서비스 등의 자원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가족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이 때문에 많은 서비스제공자 및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아동과 가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14].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은 장애아동 양육과 교육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이들의 삶의 태도, 행동양식 및 복지는 장애아동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6] 부모 혹은 양육자의 임파워먼트는 장애아동의 임파워먼트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족의 임파워먼트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본적인 지향가치로서는 물론이고 서비스가 성취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9] 이런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족의 임파워먼트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다는 것은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이 개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파워먼트에 대한 풍부한 논의에 비해 이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oren, DeChillo와 Friesen은 1990년대 초 장애아동 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게 되었으며[9] 이 척도는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장애아동 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척도의 개발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있어 임파워먼트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물론이고 가족 임파워먼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는 현재까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개념타당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Koren, DeChillo와 Friesen은 가족임파워먼트를 3개의 하위차원을 가진 개념으로 규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는데, 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요인이 제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9]. 이후 Singh 등이 역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도 3개 차원의 가족임파워먼트 개념의 요인구조는 지지되지 못하였다[2]. 이로 인해 Koren과 동료들이 개발한 똑같은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3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었고[6][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는 등[13]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또한, 이 척도는 다양한 형태의 조사에 활용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척도로서의 유용성에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 척도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조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Koren과 동료들이 개발한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고 이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한다.
- 2) 적절한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구성개념타당도를 가진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한다.
- 3) 가족임파워먼트 원척도와 단축형 척도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임파워먼트와 가족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는 1970년대부터 학자들로부터 본격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 광범위한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여러 의

미를 가진 용어의 경우 그 기본이 되는 어원이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em, power, ment가 결합된 단어로써 가장 핵심이 되는 어근은 우리말로 ‘힘’ 또는 ‘권력’이라고 해석되는 power라 할 수 있다. em은 명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하는 접두어이다. 즉, empower는 사전적으로 ‘권력이나 권위를 주거나 이양하다’라는 뜻을 가진다[16]. 여기에 ment라는 어미가 붙음으로써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는 명사가 된 것이다.

경영학 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리더 혹은 경영진이 상대적으로 열세적 위치에 있는 피고용인들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17]에서 이 용어가 가진 어원적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개혁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는 사회에서 억눌려왔던 소외계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7]. 권력으로부터 비껴나 있던 개인 또는 집단이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영학과 사회개혁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임파워먼트 개념은 서로 유사성을 갖지만,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임파워먼트가 타인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7].

사회복지 및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되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파워먼트 추동 주체와 관련해서는 경영학과 사회개혁운동의 중간적 특성을 보인다. 즉, 이 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해 발생할 수 없다고 가정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임파워먼트 과정이 촉진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4][8]. 사회복지 분야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인 Staples는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수단을 획득하려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p. 30)이라고 임파워먼트를 정의내린 바 있다[4]. Singh와 동료들은 이와 같은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가족에게 적용하면서 삶에 대한 통제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들에 따르면 가족의 임파워먼트는 “가족들이 가족의 삶의 양식과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술 및 자원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p.85)[2].

이처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임파워먼트’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해석되며 강조점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각기 다른 이론적 접근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 또한 존재한다. Koren과 동료들에 따르면 임파워먼트 개념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력함(powerlessness)을 감소시키는 것, 힘(power)을 획득하거나, 개발 또는 부여하는 것,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타인, 조직,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민주적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9].

2. 가족임파워먼트 척도

2.1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개념적 틀

가족임파워먼트척도(Family Empowerment Scale)는 Koren, DeChillo 및 Friesen이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척도를 개발하기에 앞서 이들은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와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임파워먼트 개념이 두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념적 틀을 수립하였다[9]. 이 개념적 틀의 한 차원은 임파워먼트 수준이다. Koren과 동료들은 임파워먼트를 가족체계, 서비스체계, 그리고 보다 거시적인 지역사회·정치체계의 3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9]. Korean과 동료들에 따르면, 가족은 장애아동에게 있어 1차적 환경으로, 이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관리 능력을 일컫는다. 서비스체계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부모가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기관 및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단지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입법체계, 정책입안자, 기관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옹호 노력과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Koren과 동료들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또 다른 차원은 임파워먼트가 표출되는 양식으로서, 태도, 지식, 그리고 행동으로 구분된다[9]. 태도는 부모가 느끼고 믿는 것을 가리킨다. 임파워먼트 이론에서 태도는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데,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태도가 임파워먼트 실현의 중요조건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18]. 지식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알고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Staples는 임파워먼트를 실현하기 위해 신념과 태도에 더하여 실제적인 지식, 정보, 구체적인 기술 등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4]. 행동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행동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하며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8].

Koren과 동료들은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임파워먼트의 수준에 더 많은 무게를 두어, 가족체계, 서비스체계,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가족임파워먼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각 하위차원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태도, 지식 및 행동을 의미하는 내용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임파워먼트의 표현 양식 차원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2.2 가족임파워먼트 척도 개발과 심리측정적 특성

Koren과 동료들은 임파워먼트의 개념적 틀에 맞춰 다양한 문항을 개발한 뒤 예비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에서는 척도문항의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명료성 및 가독성 등이 검토되었다. 예비조사 및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문항 수정이 이루어졌고 일부 문항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5개의 응답 범주를 가진 총 34개 문항이 완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Koren과 동료들의 조사는 정서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혹은 다양한 중복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미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1992년 6월부

터 8월까지 실시되었다. 분석에는 미성년 장애자녀를 둔 440명의 부모사례만이 활용되었다.

원척도 개발자들의 보고에 따르면[9] 이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의 α 값은 가족체계수준이 .88, 사회서비스체계수준이 .87, 그리고 지역사회·정치체계수준이 .88로서 적정수준 이상을 보여주었다.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된 두 검사간 상관관계는 가족체계수준이 .83, 사회서비스체계수준이 .77, 그리고 지역사회·정치체계수준이 .85로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양호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주축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 analysis)은 이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크리드표에 근거해 추출된 요인의 수는 4개로 이론적으로 설계된 3개의 하위요인 구조와 차이가 있었다. 총 34개 문항 중 7개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40이상의 값으로 적재되었으며 2개 문항은 어떤 요인에도 .40이상의 값으로 적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9]. 주성분분석을 통해 이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던 후속연구[2]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비록 탐색적요인분석을 활용한 두 개의 연구[2][9]에서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가 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았으나 측정문항들은 대체로 가족체계, 서비스체계, 지역사회·정치체계수준의 임파워먼트 중 같은 하위요인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문항들과 같은 요인에 적재됨으로써 이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의 가능성 혹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를 위해 2차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 장애인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도 8월 30일부터 약 한 달 간 장애인부모연

대 경기지부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 부부만족도, 가족에 대한 장애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력 인식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자료도 함께 수집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의 임파워먼트였다. 이 조사는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Koren과 동료들이 개발한 척도[9]를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 자료는 총 388개 장애가족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가 만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연령층이고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인 경우로 한정하였기에 337 사례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가족의 특성 중 먼저 장애자녀에 대해 살펴보면, 여아와 남아의 비율이 32.3% 대 67.7%로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13.2세(sd=4.3)로 확인되었다. 7-12세의 초등학교 연령대의 아동과 13-18세의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이 각각 40.7%와 40.9%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81%를 넘은 반면,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과 19-24세의 후기 청소년기 연령대는 각각 5.9%와 12.5%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 각각에 대해 유무를 질문함으로써 측정되었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59.3%로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가 각각 30.3%와 14.8%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8.6%와 8.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정신장애(3.0%), 청각장애(1.8%), 간질장애(1.5%), 심장장애(1.2%), 시각장애(0.9%), 신장장애(0.3%), 간장애(0.3%)를 가진 경우는 극히 소수로 집계되었으며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를 가진 경우는 단 한 사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장애자녀의 23.1%는 중복장애인으로, 2개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17.8%였으며 3개 이상인 경우도 5.3%나 되었다.

응답자인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43.2세(sd=4.9)였다. 35세 이하의 연령층이 전체의 5.1%, 36-40세가 26.5%, 41-45세가 36%, 46-50세가 25.0%, 그

리고 51세 이상이 6.7%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55.2%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3년제 대학 졸업 혹은 4년제 대학 중퇴의 경우는 15.5%,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6.7%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상대적 저학력층은 전체의 2.4%,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은 0.3%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전체의 4.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6.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3.4%로 확인되었다.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과 500만원 미만의 비율은 각각 25.6%와 14.2%를 기록하였으며 500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비율은 9.9%로 집계되었다. 최저소득층부터 300만원 미만까지의 누적백분율이 50.4%인 것에 비추어볼 때, 중위소득은 300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자료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고, 원척도가 기초로 하고 있는 이론적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용성을 향상시킨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주요 분석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모형추정을 위해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선택하였다. 이는 데이터가 연속변수이고 정상분포를 보일 때 적합하나 이러한 조건이 일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이 때문에 최대우도법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West와 동료들은 자료의 왜도가 2이상 그리고 첨도가 7이상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21]. 본 분석에 사용될 항목들이 연속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이유는, 본 자료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행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수치가 과도하지 않았고, 응답범주가 5개 이상인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연속변수로 취급해왔으며 그러한 접근이 분석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21]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χ^2 검증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χ^2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모형을 통해 재생산된 자료와 모집단의 자료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검증방법은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으로서 표본의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22][23]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모형적합도 지수를 함께 참고할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χ^2 검증과 더불어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CFI와 TLI의 경우 대략 .90 일 때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이며 .95 이상일 때 모형적합도가 훌륭한 수준으로 평가된다[23-27]. SRMR은 .10 보다 낮을 때 모형적합도가 양호하며 .08 보다 낮을 때 모형적합도가 좋은 수준이라고 해석된다[26][27].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모형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RMSEA의 경우 1990년대 중초 반까지는 1.0 이상일 때 나쁜 적합도, 그리고 .08이하일 때 양호한 적합도라고 보았으나 최근 그 기준이 점차 엄격해져 .06이 좋은 모형적합도의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최근 동향을 수용하여 RMSEA의 경우 좋은 모형적합도의 기준으로서 .06이하라는 기준을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에 기초하여 모형적합도를 판단할 때 지수마다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다르게 제안할 경우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Hu와 Bentler[24]는 이런 경우 모형을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 보유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TLI 또는 CFI가 .96 이상이고 SRMR이 .09 이하인 경우 혹은 RMSEA가 .06이하이고 SRMR이 .09 이하인 경우에는 모형을 기각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자 계획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외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원척도와 단축형척도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더불어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척도 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Mplus 6.0이, 그리고 그 외 상관관계분석, 알파값 산출 및 기술분석을 위해 SPSS 20.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가족임파워먼트 원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 및 내적일관성 신뢰도

가족임파워먼트 원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 모형은 Koren과 동료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9], 이 모형에서는 임파워먼트 개념이 체계의 수준에 따라 가족체계, 사회서비스체계, 지역사회·정치체계로 분류되어 각기 하나의 요인으로 규정되었다. 가족체계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 항목은 모두 12개로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서비스체계 수준의 임파워먼트 역시 12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받는 모든 서비스를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등을 예로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나의 경험과 지식이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아동과 관련한 중요 법안이 계류 중일 때 나는 의회의원(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을 접촉한다.’ 등 총 10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이 어떤 문항들로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별첨자료에 제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RMR을 제외한 다른 모형적

합도 수치들은 이 원척도의 요인구조모형이 적합성 판정 기준에 현저히 미달됨을 보여주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SRMR의 경우 .074로서 기준점인 .09 이하를 충족하였으나, CFI와 TLI는 각각 .745와 .727로 적합도 기준 .9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RMSEA 역시 .091로서 .06이하여야 한다는 모형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Koren과 동료들이 개발한 가족임파워먼트 척도가 구성개념타당도를 갖는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하겠다.

표 1. 가족임파워먼트척도 모형 적합도

χ^2 (자유도)	CFI	TLI	RMSEA	SRMR
1995.065*** (524)	.745	.727	.091	.074

*** p < .001

그러나 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해당 요인에 대한 표준적재량이 .40을 넘었을 뿐 아니라, 모두 p값 .001 이하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표준 적재량 평균값이 가족체계의 경우 .60, 사회서비스체계 .61 그리고 지역사회·정치체계가 .6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이 모형이 적절하게 수정될 경우 좋은 모형적합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줄어들수록 CFI와 TLI 적합도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28],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로 판단되었다.

표 2.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내적일관성(α)

가족수준	서비스 체계수준	지역사회·정치체 계수준	척도 전체
.87	.88	.87	.95

원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한 Cronbach의 α 값[29]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가족 체계수준, 서비스체계수준 및 지역사회·정치체계수준의 α 값이 각각 .87, .88, .87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는 .95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DeVellis에 따르면 Cronbach의 α 값이 80과 .90 사이인 경우 내적일관성이 매우 좋은 수준이나 .90을 훨씬 넘는 값이 산출될 경우

지나치게 문항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척도 문항 수를 줄이는 것이 권장된다[30]. 즉, 가족임파워먼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역시 이 척도를 단축형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 시도임을 확인시켜주었다.

2.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 개발

이론적 타당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임파워먼트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마련하였다.

- ① 척도개발자들이 임파워먼트 이론에 근거하여 척도의 하위차원으로 제시한 임파워먼트의 3개 수준은 단축형 모형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킨다. 즉, 임파워먼트 개념을 가족체계, 사회서비스체계,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으로 구별하고 이를 3개 하위 요인으로 규정한다.
- ② 선행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지지받지 못하였으나 개념적 혹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표출양식은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어떤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항목들 중에는 태도, 지식, 행동과 같은 임파워먼트의 3개 표출양식이 최소한 한 개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③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함으로써 임파워먼트 개념을 측정할 때 특정 하위차원의 중요성이 인위적으로 축소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각 하위차원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수를 동일하게 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단축형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들의 특성과 척도문항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술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문항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문항과 하위차원 척도와의 상관관계 및 문항 제거시 α 값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각 문항이 내적일관성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대부분의 문항들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척도 문항으로서 비교적 무난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3점 내외의 평균, .80~.90점 대의 표준편차, 1.0을 넘지 않는 왜도와 첨도를 기록하였으며 하위차원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관분석결과에서 적지 않은 수의 문항들이 다른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중간정도 이상의 상관관계($r \geq .40$)[31][32]를 기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임파워먼트 척도의 3개 하위요인이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의 일부로서의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하위차원과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 요인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가족임파워먼트 원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부터 하나씩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단축형 척도를 완성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① 각 문항은 특정 요인의 측정변수로서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각 문항은 타당한 이론적 근거 없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적재되어서는 안된다(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가 활용될 수 있다).
- ③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그 요인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즉, 한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가능한 한 내용적으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
- ④ 같은 조건이라면 해당 요인에 표준 요인적재량이 높은 항목이 그렇지 않은 항목 보다 선호된다.

여러 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쳐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축형 척도가 만들어졌다. 이 최종 모형에 포함된 문항들은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과 함께 [표 3]에, 그리고 이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1]에 각각 제시되었다. 이 모형에서 각 하위요인은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부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측정잔차(measurement error term)는 상호독립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에 요약된 바와 같다. χ^2 검증 결과를 제외한 4개의 모형적합도지수에서 ‘양호’ 또는 그 이상의 좋은

모형적합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CFI와 TLI가 각각 .950과 .939로서 양호의 수준을 넘어 상당히 좋은 모형적합도로 볼 수 있는 수치에 근접하였다. RMSEA은 .054로 .60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SRMR 역시 .042를 기록하여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모형적합도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06이하의 RMSEA와 .09이하의 SRMR 수치를 보인 이 단축형 척도 모형은 두 개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기각 혹은 보유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 Hu,와 Bentler[24]의 기준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이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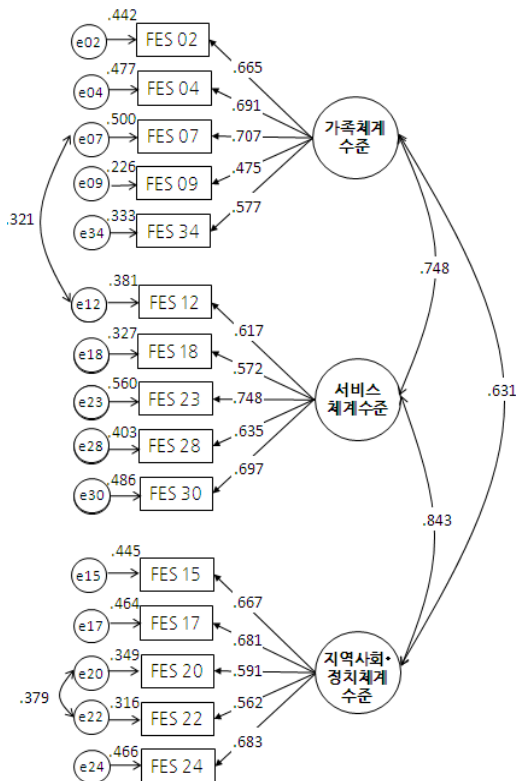


그림 1.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척도 요인구조

* 이 그림에서 요인적재량 및 요인간 상관관계는 모두 표준화된 값이며 측정변수 왼쪽위에 제시된 수치는 각 측정변수가 하위요인에 의해 설명된 변량을 의미한다.

표 3.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 문항

하위 차원	원칙도문항번호 및 내용	평균	표준 편차
가족 수준	02.우리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B)	3.50	.80
	04.나는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A)	3.22	.92
	07.나는 우리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K)	3.26	.93
	09.나는 우리 가족의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A)	3.26	.93
	34.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A)	3.44	.92
서비스 체계 수준	12.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잘 협력할 수 있다. (K)	3.39	.94
	18.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 나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A)	3.85	.86
	23.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K)	3.57	.87
	28.필요한 경우 나는 우리 아이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알아본다.(B)	3.54	.86
	30.나는 우리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K)	3.48	.83
지역사회 정치 체계 수준	15.나는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B)	3.23	.95
	17.다른 (장애)아동들의 부모와 내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A)	2.99	.92
	20.나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기관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B)	2.69	1.14
	22.나는 기관의 행정가나 의회의 의원들(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를 알고 있다.(K)	2.27	1.07
	24.나는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K)	2.99	1.00

* 각 문항 마지막에 제시된 알파벳 A, K, B는 각각 태도(attitude), 지식(knowledge), 행동(behavior)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각 문항이 이 세 가지 임파워먼트 표출 양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킨다.

표 4.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척도 모형 적합도

χ^2 (자유도)	CFI	TLI	RMSEA	SRMR
168.686*** (85)	.950	.939	.054	.042

*** p < .001

이 모형에서 모든 항목의 표준요인적재량은 .45을 초과하였으며 p값 .001 이하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위요인별 표준적재량의 수치를 살펴보면, 가족체계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475에서 .707, 서비스체계수준 임파워먼트는 .572에서 .748,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정치체계수준 임파워먼트는 .562에서 .68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하위차원간 상관관계 계수 역시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p < .001$)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합당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가족수준과 서비스체계 수준임파워먼트간 상관관계는 .748, 서비스체계수준과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간 상관관계는 .843, 그리고 가족체계수준과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간 상관관계는 .631을 기록하였다.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알파계수를 산출하였으며[29] 그 결과는 표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에서 가족체계수준, 서비스체계수준 및 지역사회·정치체계수준의 α 값은 각각 .76, .79, .79로서, DeVellis가 제시한 기준[30]에 근거하여, ‘좋은 수준’으로, 그리고 .88을 기록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5.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 내적일관성(α)

가족수준	서비스 체계수준	지역사회·정치체계 수준	척도 전체
.76	.79	.79	.88

3. 가족임파워먼트 원척도와 단축형척도 상관관계

가족임파워먼트 원척도와 단축형 척도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척도간 상관관계는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3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원척도와 15개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간 상관관계는 .98로서, 문항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척도의 동질성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위차원에서 확인된 두 척도간 상관관계는, 두 척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충분한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원척도와 단축형의 하위차원간 상관관계는 가족체계가 .87, 서비스체계는 .93, 그리고 지역사회·정치체계의 경우 .95를 기록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oren과 동료들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

는 부모들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가족임파워먼트 척도(Family Empowerment Scale)의 구성개념타당도 등 심리측정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 척도의 단축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먼저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하위차원(가족체계, 서비스체계, 지역사회·정치체계 임파워먼트) 3개에 대한 Cronbach의 α 값은 .87~.88로서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척도 전체의 α 값은 이 보다 훨씬 높은 .95에 달해 척도의 문항 수를 줄이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30]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검토된 모형적합도 지수 중 유일하게 SRMR만 적합도 기준(.09 이하)을 충족시켰을 뿐 χ^2 검증결과는 물론이고 CFI, TLI, RMSEA 지수 모두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측정변수들이 유의미하였고 .40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해당 하위요인에 적재되는 등 이 척도가 적절하게 수정될 경우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척도 문항에 대한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 Cronbach의 α 값 산출 등 기초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문항들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문항들이 같은 하위차원에 속한 문항들뿐 아니라 다른 하위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Koren, DeChillo와 Friesen의 연구[9] 그리고 Singh과 동료들의 연구[2]에서 일부 문항들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40이상의 크기로 적재되었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문항 삭제는 이론적 근거와 수정지수 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 단축형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의 α)는 원척도 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적정 수준이라 할 수 있는 .70대 후반부터 .80대 후반을 기록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CFI, TLI, RMSEA 및 SRMR 지수 모두 양호 이상의 좋은 모형적합도를 가리

김으로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제까지 이 척도의 요인구조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만 검증이 시도되었을 뿐이며[2][9], 그러한 선행연구들에서조차 척도개발자들이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임파워먼트 개념의 틀은 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는 그동안 장애아동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빈번히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 척도에 포함된 여러 문항들이 임파워먼트의 특정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부적절함을 보여주었으며 적절한 구성개념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기했다는 점에서 척도 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긍정적 기여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구성개념타당도와 내적일관성신뢰도 모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단축형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이 척도의 활용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단축형 척도는 원척도와 비교하여 척도 문항에 응답하는 시간과 설문조사도구 인쇄 시 지면을 대폭 감소시키기 때문에 특히,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장애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비스 효과성 평가 조사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많은 수의 척도를 설문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대규모 서베이조사에서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후속연구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몇몇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 개 장애인부모회의의 경기도지회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으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이 부모회 소속 회원들이 주로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과 이 부모회가 장애아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치적 활동

에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는 점도 본 연구표본이 장애아동을 둔 전국의 부모라는 모집단과 다른 여러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가 분석에 활용한 2차 자료는 애초에 가족임파워먼트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집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척도의 번역과정은 역번역 등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우리나라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엄정한 기준을 따르지 못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가족임파워먼트 척도는 연구진이 이미 이 척도를 우리나라 표본을 대상으로 사용한 선행연구자들의 번역을 참고해서 자체 번역한 것으로서 원척도에서 사용된 단어가 갖는 미묘한 뉘앙스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는 등 미세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후속연구를 위한 안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원척도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지역, 장애유형, 및 부모회 활동 등에 있어서 모집단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장애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임파워먼트 원척도와 단축형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시도할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척도의 유용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영실, 강윤경, "중복장애자녀의 부모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 향상에 관한 연구: 지적 및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의 중복장애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제6권, 제2호, pp.127-146, 2009.
- [2] N. N. Singh, W. J. Curtis, C. R. Ellis, M. W. Nocholson, T. M. Villani, and H. A. Wechsler,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Family Empowerment

- Scale," J.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 pp.85-91, 1995.
- [3] 김미옥,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권, 제8호, pp.351-381, 2005.
- [4] L. H. Staples,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14, 1990.
- [5] B. B. Solomon, *Black empowerment: Social work in oppressed communit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 [6] 박명숙, "장애아동 부모들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가족, 서비스, 지역사회 및 정치적 체계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제12권, 제4호, pp.421-448, 2008.
- [7] Y. Xu, "Empowering culturally diverse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double ABCX model,"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Vol.34, pp.431-437, 2007.
- [8] A. Boehm and L. H. Staples, "Empowerment: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Families in Society: The J.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Vol.85, pp.270-280, 2004.
- [9] P. E. Koren, N. DeChillo, and B. J. Friesen, "Measuring empowerment in families whose children have emotional disabilities: A brief questionnaire,"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37, pp.305-321, 1992.
- [10] 김미량, 이연주, 이정도,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여가제약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366-375, 2009.
- [11] 진찬영, 서미아,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239-249, 2013.
- [12] 김수정,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과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친 긍정적 기여에 대한 부모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35권, 제3호, pp.41-72, 2012.
- [13] 어용숙, 김문정, "양육스트레스와 임파워먼트가 장애아동 주양육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409-416, 2009.
- [14] P. B. Cunningham, S. W. Henggeler, M. J. Brondino, and S. G. Pickrel, "Testing underlying assumptions of the family empowerment perspective," J.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8, pp.437-449, 1999.
- [15] 유영준, 김수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가족 중심실천이 가족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제15권, 제4호, pp.183-205, 2011.
- [16] <http://wordnet.princeton.edu>.
- [17] 윤방섭, "임파워먼트: 개념, 이론 및 실천", 연세경영연구, 제38권, 제1호, pp.71-111, 2001.
- [18] C. H. Kieffer, *The emergence of empowerment: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competence among individuals in citizen organiz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1981.
- [19] C. DiStefano and B. Hes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construct validation: An empirical review," J.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Vol.23, pp.225-241, 2005.
- [20] R. H. Hoyle and A. T. Panter,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R. H. Hoyle, Ed., Sage, pp.158-176, 1995.
- [21]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R. H. Hoyle, Ed., Sage, pp.56-75, 1995.
- [22] D. Hooper, J. Coughlan, and M. Mulle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Electronic J.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Vol.6, pp.53-60, 2008.
- [23]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

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 [24] L. Hu and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pp.1-55, 1999.
- [25]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2005.
- [26] M. A. Okun, A. Barr, and A. R. Herzog, "Motivation to volunteer by older adults: A test of competing measurement models," *Psychology and Aging*, Vol.13, pp.608-621, 1998.
- [27] T. Raykov and G. A. Marcoulides, *A first course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 [28] D. A. Kenny and D. B. McCoach,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0, pp.333-351, 2003.
- [29] L. J. Cronbach,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Vol.16, pp.297-334, 1951.
- [30] R. F. DeVellis,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Sage, 2003.
- [31] 성태제, *SPSS/AMOS을 이용한 통계분석: 기술 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학지사, 2007.
- [32] A. N. Franzblau, *A primer of statistics for non-statistician*, Harcourt, 1958.

저자 소개

정 소 연(Soyon Jung)

정회원



• 2006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 Ph.D.

• 2007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척도개발

부 록

표 6. FES: 가족체계 측정문항 및 표준요인적재량

원칙도문항번호 및 내용	표준요인적재량
02.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	.553***
04. 나는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A)	.550***
07. 나는 우리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K)	.672***
09. 나는 우리 가족의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A)	.418***
16. 나는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705***
21.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706***
26.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571***
27. 나는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649***
29. 우리 아이를 다룰 때 나는 단점뿐 아니라 장점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656***
31. 나는 우리 아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후 그 일을 행한다.	.761***
33. 나는 우리 아이의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44***
34.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A)	.509***

*** p <.001

표 7. FES: 서비스체계 측정문항 및 표준요인적재량

원칙도문항번호 및 내용	표준요인적재량
01. 나는 우리 아이가 받는 모든 서비스를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88***
05. 우리 아이가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633***
06.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656***
11. 나는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687***
12.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잘 협력할 수 있다. (K)	.659***
13. 나는 우리 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노력한다.	.607***
18.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있어 나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A)	.595***
19. 나는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전문가에게 말한다.	.649***
2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K)	.721***
28. 필요한 경우 나는 우리 아이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알아본다.(B)	.628***
30. 나는 우리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K)	.696***
32. 전문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반드시 내게 물어보아야 한다.	.517***

*** p <.001

표 8. FES: 지역사회·정치체계 측정문항 및 표준요인적재량

원칙도문항번호 및 내용	표준요인적재량
03. 우리 지역의 (장애)아동 대상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58***
08. (장애)아동과 관련한 중요 법안이 계류 중일 때 나는 의회의원(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을 접촉한다.	.566***
10. 나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668***
14. 나는 (장애)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서비스체계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621***
15. 나는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B)	.629***
17. 다른 (장애)아동들의 부모와 내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A)	.646***
20. 나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기관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B)	.671***
22. 나는 기관의 행정가나 의회의 의원들(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를 알고 있다.(K)	.616***
24. 나는 특수교육법이 보장하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K)	.664***
25.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나의 경험과 지식이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09***

*** p <.001